

냉각 is What?, 뜨거운 미국 고용 -King \$ 전망 본 궤도로 복귀

2024년 2월 5일 월요일

FX / Economist 민경원
eco_min1230@wooribank.com

미국 1월 비농업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글로벌 외환시장 강달러 쇼크 재발

미국 1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35.3만명 증가로 예상(18.5만명)을 크게 웃돌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주시하고 있는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은 전월대비 0.6% 상승해 시장 컨센서스(+0.3%)에 두 배 증가. 지표 발표 후 미국 2년, 10년 국채금리는 약 16bp, 14bp 급등했고, 달러지수는 103.9p까지 급등해 강달러 충격 재발로 이어져.

임금 인상 확대 -> 연준 2% 물가목표 달성 확신 지연 -> 달러 강세 지속

우리는 2월 전망에서 1월 FOMC 이후 조기 금리인하 배팅이 청산되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 물론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뱅코프 자산부실 이슈 때문에 FOMC 직후에 강달러가 주춤하긴 했지만 고용지표의 양적, 질적 개선 덕분에 당행이 제시한 기존 시나리오로 외환시장이 복귀했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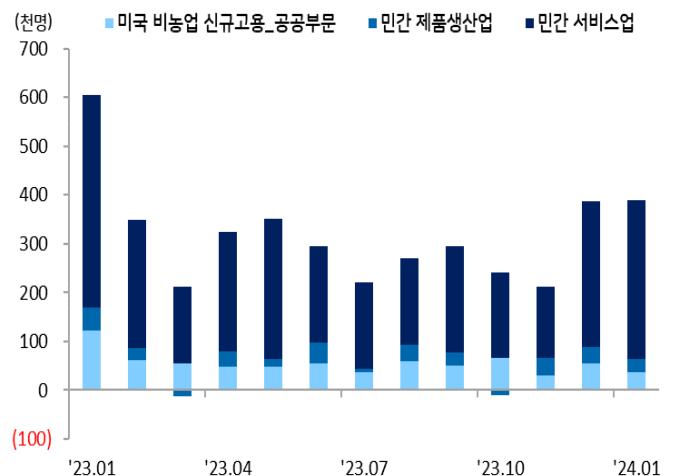
특히 임금이 예상대비 2배 올랐다는 결과가 키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이 둔화된 상황에서 명목 임금상승은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지출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 이미 1월 주 단위 소매판매가 4분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는 연초에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는 중(당행 2월 보고서 참고).

결과적으로 연준이 원하는 고용시장 냉각의 부재, 급여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3월 FOMC 이전까지 상반기 금리인하 기대가 잦아들며 달러는 유로, 파운드, 엔화 등 주요 기축통화에 우위를 점할 것이란 견해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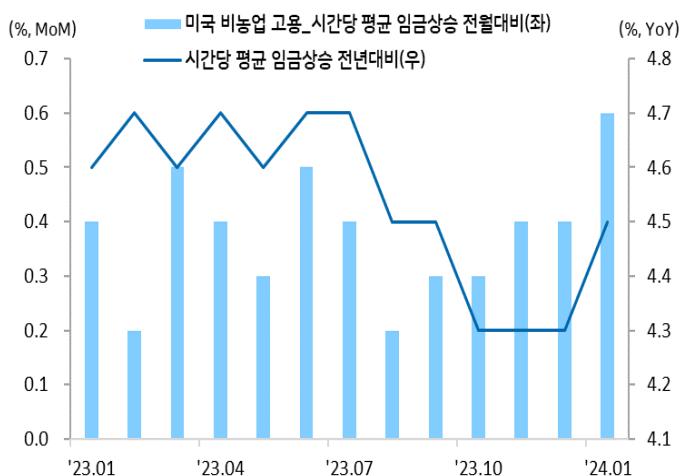
단기적으로 달러/원 향방의 분수령으로 1,340원 돌파 및 안착 여부를 제시

2월 달러/원 예상 레인지는 1,320~1,370원으로 고수.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쫓아 당국 구두개입과 월말 네고가 만들어낸 1,340원 단기고점 저항을 테스트. 최근 상단 방어에 합류한 중공업 수주 물량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상승 속도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

미국 1월 비농업 신규고용, 작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미국 1월 임금상승률 전월대비 0.6% 상승, 1년래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출처: Bloomberg, 우리은행 외환시장운용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민경원).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돋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행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해도 당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자본시장법 상 조사분석자료가 아니며 조사분석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행이 본 자료에 언급된 통화 및 관련 금융상품 등을 거래하거나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당행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의견은 예측에 불과하며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고 일정한 주기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 인용, 배포, 전송, 대여 및 변경될 수 없습니다